

1기 청년친화도시 부산진구가 만들어 가는 비전과 실험

김순화
부산진구 청년지원계장

청년, 도시 성장의 주체가 되다

도시는 산업·문화·교육·주거가 집중되는 공간이며, 그 중심에는 언제나 청년이 존재해 왔다. 청년은 도시의 원동력이며, 혁신의 원천이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이다. 반면 도시는 청년에게 기회와 성장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경쟁과 불안정, 높은 경제적 비용을 강요하는 환경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상호 의존적 관계로 인해 도시와 청년의 삶은 긴밀하게 얽혀 있는데, 최근 대한민국의 지방도시들은 청년 인구 감소와 청년 이탈이라는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는 지방소멸이라는 위협적인 미래를 예측해야 하는 부담으로 다가온다. 부산진구 역시 부산에서 청년 인구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러한 부담에서 자유롭지 않다. 이에 2018년 「청년 기본 조례」를 시작으로 청년지원 전담조직 신설, 2023년 창업지원 전담조직 신설, 2024년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정, 청년 네트워크 구성 등 청년정책 기반을 단계적으로 다져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이 같은 꾸준한 노력은 결국 국무총리 지정 ‘청년친화도시’ 전국 최초 선정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졌다. 서울 관악구, 경남 거창군과 함께 선정된 부산진구는 특히 ‘문화·복지형’ 청년친화도시에 가장 적합한 도시라는 평가를 받는다.

청년친화도시는 청년의 삶을 기준으로 도시를 재설계하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청년이 다시 도시를 이끄는 선순환 구조를 지향한다. 지정 후 2년

부산진구가 가진 경쟁력: 청년의 ‘삶 전체’를 돌보는 정책

간 매년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부산진구는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실험을 이어가고 있다. 결국 청년 친화도시는 청년이 도시의 주인공으로 자리 잡고 성장하며,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활력을 높이고 사회적 부담을 전환시키는 출발점이다.

부산진구가 문화·복지형 청년친화도시로 선정된 데는 부산의 중심이라는 지리적 강점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하였다. 서면을 중심으로 한 교통망과 생활인프라는 부산 전역 어디로든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편리함을 제공하며, 이는 청년들이 생활·학업·직장을 균형 있게 유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또한 서면 젊음의 거리, 전포 카페거리 등 다양한 문화·여가 공간이 밀집해 있어 청년들이 일상에서 쉽게 창작 활동이나 문화 소비를 즐길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다. 이런 문화적 기반은 자연스럽게 디자인·예술·콘텐츠 산업 분야의 청년 창작 생태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청년의 삶 전반을 세심하게 돌보는 정책 방향을 정하는 데 적잖은 영향을 미친다. 청년 문화, 상권, 교육 인프라가 밀집된 중심 도시라는 입지에 더해 일자리·창업뿐 아니라 문화·복지·정신건강을 아우르는 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올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그중에서도 특히 돋보이는 분야는 ‘공간 정책’이다. 더 큰 규모의 청년 공간을 가진 타 지자체들도 있지만, 부산진구는 단일 확장보다는 각 공간의 고유성을 살려 청년의 다채로운 상황과 필요를 담아냈다. 현재 부산진구에는 다섯 곳의 청년 공간이 운영되고 있다.

먼저 ‘청춘소셜’과 ‘와글와글 플랫폼’이다. 부전동의 청춘소셜(청년 마음건강센터)은 심리 상담, 회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청년의 마음 건강을 세심하게 지원하고 있다. 인접한 와글와글 플랫폼은 니트(NEET)·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관계망 회복과 자립 역량 강화에 집중하고 있고 공동체를 형성해 소통할 수 있어, 두 공간이 함께 청년의 정서적 기반을 책임지고 있다.

다음으로 ‘청년마루(JOB UP 카페)’가 있다. 당감동에 위치한 청년마루는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통해 일자리 카페로 전환되었으며, 자기 계



청춘소설



와글와글 플랫폼



청년마루



청년창조발전소



청년FLEX

©부산진구

발 및 역량 강화 교육부터 자기소개서 첨삭과 모의 면접까지 원스톱 취업 지원 기능을 갖추고 있다. 청년들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취업에 대한 욕구를 채워 주는 역할을 한다.

청년창조발전소(디자인스프링)는 창업지원팀이 직접 운영하는 공간으로, 창업공간 제공과 멘토링·네트워킹 등 창업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전포역사 내에 자리한 ‘청년FLEX’는 누구나 편하게 쉬고, 읽고, 머무를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공간으로, 전포의 청년 밀집 특성과 지하철 접근성을 최대한 활용한 청년 거점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산진구는 이러한 공간들을 기반으로 청년의 다양한 일상—정신 건강, 관계망, 취업, 창업, 휴식—전체를 포괄하는 정책 생태계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서면·전포,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도시의 중심

서면은 부산의 교통·상권 중심지이며, 인접해 있는 전포동은 전포 카페거리로 그 명성을 얻어 ‘공구길’이나 ‘사잇길’이라는 또 다른 골목과 연결되는, MZ세대 감성과 로컬 브랜드가 살아 있는 대표적인 청년 상권이다. 도심의 편리함과 골목의 여유로움이 공존하는 두 곳은 실제로 부산진구 청년 창업의 절반 이상이 집중되어 있다.

이 지역적 에너지를 바탕으로 탄생한 것이 청년과 서면·전포 동반성장 프로젝트 ‘청년이 서면, 전포가 된다’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문화·창업 특화정책으로 ▲트라이얼 스토어 운영 ▲상권 브랜딩 ▲

청년 예술전시공간 운영 ▲상권 활성화 거리축제 ▲정책 연계 팝업스토어 등 다양한 실험이 함께 진행되었다.

트라이얼 스토어 ‘시도시 전포’

전포동 유휴공간을 임차해 2주 단위 릴레이 방식으로 운영되는 창업 실험실이다. 임대료와 인테리어 부담 없이 신생 브랜드가 시장과 만나는 구조로, 청년 창업가에게 ‘리스크 없는 도전’을 제공하였다. 단순 수익성이 아닌 혁신성·지속가능성·지역연계성을 기준으로 브랜드를 선정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창업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청년의 작은 도전이 도시의 새로운 변화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년상권 브랜딩 구축

청년상권운영단 ‘좋은사잇’은 전포사잇길을 하나의 상권 브랜드로 만들기 위해 구성된 청년 상인회이다. 부산진구는 이들과 함께 ‘공존형 청년상권’ 모델을 구축하고, BI 제작 및 공용 소모품 개발 등 상권 정체성 확립을 지원하였다.

2025년 10월 열린 ‘길 사이, 전포’ 팝업 & 스탬프 투어는 청년 창업가와 대학생 서포터스가 함께 만든 지역 브랜딩 축제로, 방문객들의 높은 호응과 상인 간 유대 강화를 이끌어 냈다. 특히 기획 단계부터 청년이 직접 참여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으며, 청년의 도전에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역할을 하였다.

청년 예술가 전시공간 운영

대학생 사진전, 부산국제영화제 출품작 상영, 청년 작가 전시, 패션쇼, 토크쇼, 라이브 드로잉 등 모두 6개의 실험적 전시가 전포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이는 전포를 방문한 청년들의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뿐 아니라 주변 카페나 식당, 소규모 독립 상점 등 지역 상권이 활기를 띠는 동시에 지역 신진 작가들에게는 작품을 선보일 수 있는 무대를 열어준 시도였다.

SNS 공유가 활발한 것이 청년의 특성이라고 보면 이러한 세 가지 시도는 전포동이라는 장소가 자연스럽게 홍보되어 도시 내에서 창업·문화·예술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e-스포츠 나이트(2025.11.1.~2.)



청년정책 팝업스토어(2025.9.5.~24.)

©부산진구

축제는 어떻게 도시의 성장과 확장을 가져올 수 있을까

부산진구는 부산에서 드물게 e-스포츠 경기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자치구 최초로 ‘구청장배 e-스포츠 대회’를 열었다. 2025년에는 맥주축제와 청년 문화를 결합한 ‘비어 블록(Beer Block) 그랑프리’, G-STAR 기간에 맞춘 ‘e-스포츠 나이트’를 개최하였다. 부산진구 청년만이 아닌 전국에서 모여드는 청년들의 관심에 힘입어 축제는 또 한 번 도시를 경제적·사회적·문화적으로 성장시켰다.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홍보하고 청년창업 브랜드를 소개하는 ‘청년정책 팝업스토어’는 청년주간을 포함해 3주간 이루어진 축제이다. 다섯 곳의 청년 공간에서 진행된 활발한 프로그램이 청년을 서면으로 집중시키고, 북토크 콘서트와 청년이 선호하는 명사초청 강연 등 3주 동안 3,200여 명의 청년이 방문하며 큰 관심을 모았다.

이처럼 축제는 청년의 문화를 대중에게 소개하기도 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기도 하여 도시를 좀 더 확장시킨다.

부산진구가 향하는 길: 실패해도 괜찮은 ‘기회의 도시’

부산진구가 청년에게 전하고 싶은 핵심 가치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기회’이다. 청년이기에 실패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다. 그러나 시도하는 것도 청년이기에 가질 수 있는 특권이다. ‘해보는 것’이다.

청년친화도시 추진 과정에서 가장 큰 성과라면 부산진구가 청년에게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는 부산진구 역시 한 계단 성장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청년이 도전할 수 있는 도시는 경쟁력과 매력을 높이고 큰 성장을 이룬다.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니라 찾아오는 도시, 다시 돌아오고 싶은 도시, 일자리·주거·복지·문화가 하나의 생태계로 연결되어 맘껏 시도해 보는 도시가 바로 부산진구가 그리는 ‘미래의 청년도시’이다.

청년친화도시 추진 과정과 청년정책을 펼치면서 깊이 느낀 점은 ‘청년은 지역의 미래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바로미터’라는 사실이다. 청년이 머물고 웃을 수 있는 도시라면, 그 도시는 자연스럽게 성장할 힘을 얻게 된다.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정책을 만들고자 한다.

도시가 청년을 품으면, 청년도 그 도시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 도시의 미래를 바꾼다. 부산진구는 오늘도 청년이 꿈꾸고 머물 수 있는 도시를 향해, 조용하지만 단단한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